

작가-비평가 관계와 비평가의 구조적 위치가 소설 단행본 판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 2010-2015*

이원재 · 김병준 · 전봉관**

목차

-
1. 서론
 2. 자료의 범위 및 수집 방법
 3. 자사 출판물에 대한 문예지의 비평
 4. 비평가 네트워크와 비평 영향력 분석
 5. 결론 및 토론
 6. 표와 그림 : <표 7>, <그림 1 - 10>

〈국문초록〉

우리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예지 서지 정보와 작가, 비평가들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그리고 2010-15년 사이 3대 출판사 소설 단행본 판매량 자료를 활용하여 비평가 소설 단행본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는 물론 비평가의 네트워크 위치가 소설 단행본 판매량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평론 권력과 사회적 권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문학 권력론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한국 문학 권력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R0184-15-1037) 및 한국연구재단(NRF-2015S1A5B603710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제 1저자)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및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핵심어 문학 권력, 평론 권력, 사회적 권력, 상업적 권력, 사회연결망 분석, 시계열 통계

1. 서론

2015년 이응준은 신경숙을 둘러싼 문학 권력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과 온라인의 반응이 비등했고, 각 문예지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2001년 강준만, 권성우의 문학 권력론을 되짚었고, 문학 권력론의 적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상반된 평가들을 내놓았다. 문학계가 문학 권력을 둘러싼 사실과 이론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실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자세¹⁾와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훈고학적 논증 오류(*argumentum ad verecundian*)²⁾는 문학 권력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이 가운데 “7-80년대 왕성했던 신인 발굴의 부재”, “스타 시스템이 만들어낸 대다수 주변의 빙곤화”, “다양성과 새로운 것의 질식”과 같은 경험적 관찰들은³⁾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사회적 환경 변화가 빚어낸 자연스

1) “‘문학 권력’은 객관적으로 현존하는 실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에 따라 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리 효과(power effects)일 수는 있다.” 남진우, 「문학 권력 논쟁에 대하여」, 『문화동네』, 2001. 겨울, 1-13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만 세계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자체가 하나의 삶이고 권리이다. 따라서 사람이 다르면 평가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 이수영,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6-7면.

2) “그러나 한편 푸코의 권리 편재론이 단순하게 수용될 경우에는, 모든 것이 권리에 해당된다면 권리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과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될 것이다. 즉, 푸코 식의 권리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는 특정한 권리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성우, 『논쟁과 상처』, 숙명여대 출판국, 2006, 293면. “정작 문제는 이같은 권리관 자체에 대한 글쓰는 이의 입장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푸코류의 권리 개념이 유발하는 ‘권력의 선형적 실체화’를 통해 “모든 것에서부터 권리의 표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권력을 불러내고 지어내어 마치 풍차에 맞서는 것처럼 싸우는 권리 비판론자들에 대한 풍자는 이루어졌지만, 단지 그뿐이다.” 윤지관, 『놋쇠하늘 아래서: 지구 시대의 비평』, 창비, 2001, 164면.

3) 강준만·권성우, 『문학 권력』, 개마고원, 2001; 서영인, 「한국문학의 독점 구조와 대중적 소통 감각의 상실」, 『실천문학』, 2015. 가을, 152-66면; 이광호, 「문학 장치의 경계에서 - ‘문학 권력

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졌다.⁴⁾

문학 권력론은 크게 세 가지 권력을 지목하였다. 평론 권력, 사회적 권력, 그리고 상업적 권력이 그것이다. 문학 권력론자들은 '평론 권력'을 해명하기 위해 문학평론가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순문학계가 본격적인 메타비평으로 화답한 예는 찾기 어렵다. 문학 권력론은 "평단의 문제들과 수준들을 가려보는 안목의 부재"(윤지관)와, 용기를 내어 발언을 하더라도 "외면, 무시의 전략에 걸려들어 혼자 떠벌린 형편"(조정래)⁵⁾이라는 자조적 진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사회적 권력'은 "나중에 대학을 빨리 잡기 위해" 문화 권력에 봉사하는 젊은 평론가나, 이에 대해 "학파, 유파, 애콜은 자연스러운 것"(김병익)이라고 에둘러 넘어가는 기성 평론가의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⁶⁾ 우리는 이전 연구⁷⁾에서 문학 권력을 전략적 투쟁의 집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불균질한 힘의 분포가 만들어내는 장(field)의 자연스러운 형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판단은 유보하였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구체적 관찰을 통해 새로운 논의 전개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까지 포기하지 않았다.⁸⁾ 이 문제 의식 아래, 소설가들 사이의 비문학적 거리(성

론'의 재인식, 『문학과사회』, 2015.겨울, 399-422면.

- 4) "신형철: 어떤 분들은 주요 출판사들이 모두 상업주의로 투향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폭력적으로 말씀하시는는데, 그렇다가 보다는, 문학적 취향과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도록 만드는 외적(사회적·정치적) 요소가 그만큼 줄고 작가들의 문학적 스펙트럼 자체가 비교적 좁아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출판사가 모두 지지하는 작가일 경우에는 출판사를 돌아가며 책을 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김도언·손아람·이기호·장강명, 「한국문단의 구조를 다시 생각한다 - 작가들의 시선으로」, 『문화동네』, 2015.가을, 1-72면.
- 5) 강준만·권성우, 앞의 책, 55-59면에서 재인용.
- 6) 강준만·권성우, 앞의 책, 146, 181면.
- 7) 전봉관·김병준·이원재,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형: 1994~2014」, 『현대 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우리는 문학동네가 창간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예지(『창작과비평』, 『문화동네』, 『문화과사회』) 전수 조사를 통해, 총 11,629건의 서지 자료와 22년간 문예지에 글을 싣거나 비평의 비평을 받은 문인 1,668명의 성별, 나이, 등단지, 등단년도, 출신대학·대학원, 학과 등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3대 문예지를 비롯한 각종 문예지 편집위원 역임 여부를 조사하여 자료에 포함하였다.
- 8) "2000년대 초반의 '문학 권리 논쟁'이 권리의 주체를 상정하고 그를 비판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문학장의 작동 구조를 단순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문학장 내의 권리 투쟁 형태를 땀으로써

별, 학벌, 나이, 등단시기)가 세 개 문예지로부터의 호명 여부를 통해 발생하는 상호간의 문학적 거리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가를 통계 검증하였다.⁹⁾ 그 결과, 소설 가들 사이의 비문학적 관계는 문학적 관계의 50% 이상을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두 소설가가 세 개 문예지로부터 얼마나 비슷한 정도로 언급 되는가가 둘 사이의 성별, 학벌, 연령 등의 유사성을 통해 50% 이상 예측된다는 뜻이다.

이 연구에 대한 문학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문학 전공자들에게 생소한 연구방식(통계)에 대한 불신이었다. 자료의 대표성과 크기의 문제에서부터 과연 이를 통해 인과적 추론을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논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통계에 대한 비전문적인 인상 비평이 이어졌다.¹⁰⁾ 이는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새로운 문학장의 구성과 주체의 문제를 충실히 제기하지 못했다는 한계 정도는 간략히 지적해 두고 싶다.” 서영인, 앞의 글, 155면; “‘문학 권력론’은 어떤 공간(대상)은 권력이 있고 어떤 공간(주체)은 권력이 없다는 인식 구조에서 벗어나, 문학장의 실제적인 구조와 문학 주체의 존재 방식에 대한 더 세밀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광호, 앞의 글, 400면.

- 9) 이는 문학에 대한 기존의 네트워크 분석들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절 대중 음악가들에 대한 연결망 분석과 1920년대 문학가들의 연결망 분석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의 형태와 행위자에 대한 네트워크 수치를 기술적 (descriptive) 으로 분석한다. 우리 연구는 두 가지 변인 (비문학적, 문학적) 사이의 통계적 상관 관계를 직접 검증하는 추리 (inferential) 통계 수준으로 분석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설명적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 한준한신갑·장유정·권도희, 「한국 근대적 음악계의 형성과 문화」, 『문화와 사회』 10, 2011, 253-88면; 이재연, 「일반논문 : 작가, 매체, 네트워크—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언스SAI』 17, 2014, 257-301면.
- 10) 염종선은 표에 나타난 수치의 작음을 들어 이것이 통계분석에 충분한 양이 아닐 것이라는 비판적 질문을 던진다. 이 같은 질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모집단 (population) 과 표본(sample)의 무작위성(randomness)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자료는 주어진 기간 (1994-2015), 세 개 문예지의 전체 (complete) 데이터이다. 우리의 진술이 21년 동안 세 개 문예지에 한정된 것이라면, 표에 나타난 모든 숫자는 그 자체로 모집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숫자 자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각 수치의 상대적 높낮음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도 된다. 둘째, 우리가 모집단의 범위를 확장하여 1994년 이전과 2015년 이후의 시간과,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모든 문예지들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표본의 크기는 시간과 범위의 측면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표에 나타난 수치의 작음은 이산분석 (discrete analysis)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것이며, 얼마든지 표본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예를 이 논문에서 보일

비전공자들에게 좀 더 친절한 설명과 아울러 통계적 설명의 범위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연구자들의 책임이 크다.

또 다른 비판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 소설가들을 비평을 통해 선택적으로 호명하는 것은 문예지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이념적 지향성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지향성의 결과 소설가들이 문학장 내에서 불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오히려 문예지들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획일화된다면 문화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사회적 배경이 소설가의 문학적 지명도를 절반 이상 예측 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의 심각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들이 부정적 의미로서의 문학 권력을 사실상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학 권력론의 마지막 층위인 상업적 권력으로 눈을 돌렸다. 강준만과 권성우가 “두 M신(money, mass-media)”이라고 부른 상업적 권력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제 3의 요인이라기보다 평론 권력과 사회적 관계가 동원되는 이유이자 목적에 가깝다. 즉, 상업적 권력이란 상업적 성공을 위해 평론과 문학상이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결탁하는 과정을 가리킨다.¹¹⁾

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목표로 동원되는 평론과 사회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장에서의 성공을 평론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예측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상술하자면, 우리의 연구 설계는 1) 작가, 작품, 문예지, 출판사의 개별적 속성들을 고려한 상태에서(평론 권력), 2) 비평가들의 사회적, 직업적 배경(사회적 권력)이 비평 대상이 되는 작품의 상업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문학 전공자들에게 생소할 통계 기법에 대해 최대한 자세한

것이다. 염종선, 「창비를 둘러싼 표절과 문학 권력론 성찰: 한 내부인의 시작」, 『창작과비평』, 2015.겨울, 66-92면.

11) 강준만·권성우, 앞의 책, 36, 92, 104, 128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얼마나 도울 수 있는가는 일차적으로 필자들의 역량에 달렸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상 모형 수립의 절차와 이유, 개별 변수의 의미, 모형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비평가(편집위원) 연결망을 구성하고, 개별 비평가들의 구조적 위치를 수치화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개별 작가들과 갖는 관계성 또한 수치화하였다. 우리는 특정 작품에 비평가를 배치하는 과정에 문예지/출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입될 문예지/출판사의 심미적·이념적 지향성을 통계적으로 통제(control)하였다. 이는 평론의 내용이 해당 작품의 상업적 성공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론 내용의 효과가 동일했을 때(*ceteris paribus*), 다시 말해 평론 내용의 효과가 사실상 없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적 설계이다. 이를 통해 비평가작가, 비평가-비평가의 관계적 속성이 2010-2014년 사이 3개 문예지 출판사가 출간한 228권의 단행본의 주별 판매량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같은 연구 설계가 가능했던 건, 해당 기간 228권 단행본의 판매량 자료를 제공한 (주)교보문고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문학 권력에 대한 비판들이 이를 지양하는 제도적 합의로 빌전되지 못한 건, 부분적으로 문학 권력의 사실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론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수치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문학 권력에 대한 문학계의 합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자료의 범위 및 수집 방법¹²⁾

2-1. 서지 정보 및 문인 정보 자료 수집 방법

우리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3대 문예지 서지 정보를 학술 정보 사이트인 Dbpedia와 교보 스콜라를 통해 다운받아 전수 조사하였다. 학술 정보 사이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신 서지 정보(2015년)의 경우 직접 문예지 목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서지 정보에 나온 저자와 비평의 대상이 된 문인들의 사회인구적학인 정보를 데이터 긁어오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¹³⁾ 특히 문예지에 실린 비평의 제목과 부제를 통해 비평가¹⁴⁾의 비평의 대상이 된 문인(소설, 시인, 또 다른 비평가) 모두 기입하여 비평가와 작가 사이의 관계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비평은 시론(時論), 작기(작품)론, 서평, 논문¹⁵⁾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통해 22년간 753명의 문인이 3대 문예지에서 비평의 '대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2. 온라인 책 판매량 및 블로그 서평, 뉴스 데이터 수집 방법

우리는 문예지 비평과 독자들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독자들의 반응을 블로그 서평과 서점 책 판매량으로 상정하고 이를 모았다. 또한 블로그 서평과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단행본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새 책 소개, 작가 인터뷰)도 수집하였다. 여기서 블로그 서평, 책 판매량, 인터넷 뉴스

12) 이 글에서 언급하는 출판사와 문예지 이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비'(출판사) - 『창작과비평』(문예지) '문화동네'(출판사) - 『문화동네』(문예지)
'문학과지성사'(출판사) - 『문학과사회』(문예지)

13) 전봉관 외, 앞의 글, 174-179면 참고.

14) 이 연구에서 비평가란 평론으로 등단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시인이나 소설가라 하더라도 다른 작가나 작품에 대해 평론을 쓴 경우 모두 비평가로 처리하였다.

15) 문예지에 게재된 논문도 포함했기 때문에 문인 정보에는 현장 비평가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자(학계)도 포함된다.

기사 데이터 모두 단행본 출판일 1년 이내를 범위로 삼았다. 왜냐하면 특정 단행본이 출판 된 후 문예지 비평이 보통 1년 이내에 이뤄지며, 동시에 그 비평의 영향력 또한 1년이 최대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¹⁶⁾ 즉,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대 출판사에서 출판된 소설 단행본 목록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블로그, 뉴스 기사, 문예지 비평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가. 3대 출판사 소설 단행본 목록

우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대 문예지가 소속한 출판사들이 출간한 소설 단행본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10년을 시작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그때부터 국내에서 소설 미디어(트위터, 블로그 등)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출판 단행본 목록을 내려받은 후¹⁷⁾,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소설만을 따로 목록화했다. 이 과정에서 단행본 초판이 아닌 재판이나,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3대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모두 제외했다. 그 결과 3대 출판사에서 5년간 신간으로 출간한 소설 단행본은 모두 228권이었다.

나. 블로그 서평

위 소설 단행본 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독자들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블로그 서평 글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대상은 네이버 책, 다음 책 서비스였다.¹⁸⁾ 독자들이 각자 블로그에 자신이 읽은 책의 서평을 남기면 네이버와 다음 책 서비스에 연동되어 각 작품에 관한 서평 개수를 알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JAVA 크롤링

16)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특정 작품에 대한 문예지 비평과 블로그 서평은 몇몇 인기 작품을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이뤄졌다.

17) 창비 (<https://www.changbi.com>) - 도서메뉴 - '창비 전체도서 목록 다운로드'
문화동네 (<https://www.munhak.com>) - '도서목록 자료실'
문화과자성사 (<https://moonji.com>) - '도서목록 다운로드'

18) 네이버 : <https://book.naver.com>

다음 : <https://book.daum.net>

패키지를 활용, 서평 제목과 작성 연월일을 모두 수집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출판 단행본 정보와 함께 블로그 서평 정보를 정렬하였다.

작품명	작가	출판사	출판일자	서평 제목	작성 일자	서평 장소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0	두근두근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살만 한 곳.	2011.7.1	다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다음과 네이버에서 228권에 대한 서평 데이터 14,074 건을 정리하였다.

다. 단행본 판매량

우리는 [\(주\)교보문고](#)로부터 228권 소설 단행본의 교보문고 온·오프라인 판매량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는 단행본이 출간된 날로부터 52주 동안의 판매량을 주별로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출판사가 도서관과 같은 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매출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도서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였다.

작품명	작가	출판사	출판일자	판매량	판매주차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0	691	1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7	872	2

라. 인터넷 뉴스 기사

인터넷 뉴스 기사의 경우 네이버 뉴스 검색¹⁹⁾에서 작품명과 작가명을 함께 검색하여 나온 기사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김애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의 경우, 검색창에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을 입력하여 나온 기사들을 모두 수집하였다. 이 과정 또한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후 기사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며 간혹 작품이나 작가에 관련 없는 기사는 제거하

19) 네이버 뉴스 : <https://news.naver.com>

는 방식을 취했다.

작품명	작가	출판사	출판일자	기사 제목	작성일자	언론사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0	김애란 첫 장편 '두근두근...'	2011.6.29	한경

단행본 출판 1년 이내의 기사들만 따로 모아 정리한 결과, 총 4,657건의 인터넷 뉴스기사를 확인하였다.

마. 문예지 비평 시점 확인

2010년 봄호부터 2015년 겨울호까지 6년간 3대 문예지에서 비평한 작품과 비평한 비평가 그리고 비평했던 시점(문예지 출간일 기준)을 모두 수집하였다. 단행본 데이터(2010-2014)와 달리 문예지 데이터가 2015년까지 있는 이유는 소설 단행본 출간 이후 1년간의 문예지 비평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령 2014년 12월에 출간된 단행본이 추후 1년간 문예지 비평을 받았을 경우 2015년 겨울호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했다. 228권의 단행본이 모두 문예지에서 비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확인한 결과 228권 중 131권만이 문예지 비평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료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작가	출판사	출판일자	주차	창작과 비평	비평가	문학 동네	비평가	문학과 사회	비평가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0	12	1	강동호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0	24			1	차미령		

위 표는 출간일로부터 12주차에 『창작과비평』에서 강동호가 『두근두근 내인생』을 1회 비평한 것과 24주차에 『문학동네』에서 차미령이 『두근두근 내인생』을 1회 비평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주차에 비평 횟수가 2회가 되면, 비평 횟수는 2로 바뀌고 비평가 이름도 한 명 더 추가된다.

바. 종합

수집한 모든 데이터(판매량, 블로그 서평, 뉴스기사, 문예지 비평)를 1주일 단위로 잘라 단행본 출간일로부터 1년(52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횡단면적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패널 데이터(Panels data) 형식이다.

작품명	작가	출판사	출판일자	판매량 (권)	블로그 서평(건)	뉴스기사 (건)	문예지 비평 종합 (누적횟수)	주차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0	1374	23	8	5	12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6.20	413	7	1	6	24

3. 자사 출판물에 대한 문예지의 비평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대 출판사에서 출간된 소설 228권 중에서 2010년 1월에서 2015년 12월 사이 72개월 동안에 3개 문예지 중 한 군데 이상에서 평론이 실린 작품은 131권이었다. '창비'에서는 총 69개 초판 단행본 중 29권이 비평되었으며 '문학과지성사'는 82권 중 35권, '문학동네'는 77권 중 67권이 비평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 출판사의 단행본이 반드시 자사 문예지에서 비평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²⁰⁾. <표 1>, <표 2>는 문예지별 비평 현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창비'에

20) 자사 단행본을 자사 문예지에서 다뤄주지 않고, 오히려 타사에서 다뤄준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학동네' 작품이나 『문학과사회』에서만 비평(『7번 국도 revisited』, 『1F/B1』) '문학과지성사' 작품이나 『문학동네』에서만 비평(『끄라비』, 『바람이 분다, 가라』, 『바벨』) '창비' 작품이나 『문학동네』에서만 비평(『투명인간』, 『고백의 제왕』) 위 모든 작품들의 공통점은 자사 문예지에서 장편 소설 연재를 했거나, 단편 소설집인 경우 일부 단편을 자사 문예지에서 이미 실은 것들이었다.(『7번 국도 revisited』의 경우는 문예지에 실린 작품은 아니나 이미 '문학동네'에서 90년대에 나온 『7번국도』라는 작품을 작가 김연수가 다시 쓴 리메이크 소설이다.) 이를 통해 이미 자사 문예지에서 연재를 했던 작품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는 따로 비평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이 '문학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예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사 단행본을 비평해주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 출판된 책이 문예지 『창작과비평』과 『문학동네』에서 비평된 경우는 4권이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판된 책이 자사 『문학과사회』에서만 비평된 경우는 14권이다. <표 3>는 3대 문예지 모두에서 비평한 단행본 목록이다. 작가 13명, 작품 15편이 이에 해당한다.

<표 1> : 문예지별 비평 현황 (단위 : 작품 수)

출판사	문예지 비평							무비평 21)	총합 21)
	창작과 비평	문화과 사회	문화 동네	창작과비평/문 학과사회	문화과사회/ 문화동네	창작과비평/ 문화동네	창작과비평/ 문화동네/문 학과사회		
창비	7	0	2	5	3	4	8	40	69
문화과 지성사	0	14	3	0	13	2	3	47	82
문화 동네	1	2	41	4	10	5	4	10	77

<표 2> : 문예지별 비평 현황 2 (단위 : 작품 수)

출판사	문예지 비평						무비평 22)	총합(22)
	자사만 비평	1개 문예지와 함께 비평	3개 문예지 모두 비평	자사 포함 비평 합계	자사 제외	비평 총합		
창비	7	9	8	24	5	29	40	69
문화과 지성사	14	13	3	30	5	35	47	82
문화 동네	41	15	4	60	7	67	10	77

<표 3> : 세 문예지에서 모두 비평된 작품목록

작품명	작가	출판사	비평횟수
내 정원의 붉은 열매	권여선	문화동네	4
비자나무숲	권여선	문화과지성사	4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김미월	창비	3
두근두근 내인생	김애란	창비	8
비행운	김애란	창비	5

21) 무비평 포함.

22) 무비평 포함.

좀비들	김종혁	창비	3
더블	박민규	창비	3
위풍당당	성석제	문학동네	4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	문학동네	3
큰 늑대 파랑	윤이형	창비	3
프랑스식 세탁소	정미경	창비	3
로기원을 만났다	조해진	창비	3
고령화 가족	천명관	문학동네	3
생강	천운영	창비	3
저녁의 구애	편혜영	문학과지성사	3

이 같은 현황을 종합해볼 때, 자사에서 출간한 작품에 대해 가장 활발한 비평 활동을 벌이는 곳은 '문학동네'(<표 4>)이다. '문학동네'는 다른 문예지에 비해 자사 작품을 단독으로 비평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들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5>는 <표 2>를 재구성하여 '조정 잔차(adjusted residuals)'를 계산한 결과이다. 조정 잔차의 절대 값이 2 혹은 3이 넘었을 때 다른 범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절대 값 3 이상을 차이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문학동네'가 타사에 비해 자기 출판물을 단독으로 비평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학동네'의 출판물이 비평되지 않을 가능성이 월등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 문예지별 비평 비율

문예지	자사만 비평 ²³⁾	비평 ²⁴⁾
『창작과비평』	24%	42%
『문학과사회』	40%	43%
『문학동네』	61%	87%

23) = 자사만 비평 / 비평 총합

24) = 비평 합계 / 총합

<표 5> : 문예지별 비평 조정 잔차(Adjusted Residuals)²⁵⁾

문예지	항목	무비평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 비평	자사 단독비평	다른 문예지 하나와 함께 비평	모두 비평
『창작과비평』	단행본 권수	40	5	7	9	8
	조정 잔차	3.104	-0.079	-3.811	-0.859	2.012
『문학과사회』	단행본 권수	47	5	14	13	3
	조정 잔차	3.381	-0.585	-2.574	-0.115	-1.333
『문학동네』	단행본 권수	10	7	41	15	4
	조정 잔차	-6.446	0.671	6.314	0.951	-0.602

이 결과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해석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문학동네'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 자기 홍보(self-promotion)의 경향성 내지는 의도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학동네'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 비평의 가치가 있는 작품을 더 많이 출판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현재 '문학 권리' 비판자와 이를 방어하는 출판사 내부의 시각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증하기 어렵다.

첫째, 만약 조정 잔차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문학동네'의 자기 홍보 내지는 상업적 전략의 결과라면 이는 상업적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출판물에 대한 애정과 이를 독자와 문학계 내에 뿌리내리고 싶어 하는 욕구와 행동은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권리"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두 번째 해석도 지지하기 어렵다. 문예지 출판사들은 자신의 시각과 문학의 일반적 수준을 고려하여 최선의 양서를 출판해왔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관적 편향성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여러 단계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내비친다.²⁶⁾ 하지만 이 같은 내부인의 해명 또한 특정 작품이 출판부와 문예지 편집국 안에서 배치되는 과정, 그리고 나아가 이 과정이 그 동안 시장의 반응과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경험적 평가를

25) 유의미한 수치일 경우 볼드체 처리.

26) 염종선, 앞의 글, 91면.

결여한다는 점에서 무작정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문학 권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들 모두 좀 더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들이 제시되는 한에서만 발전된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문학 권력 논쟁은 서로 다른 권력 개념과 분석 수준들이 부딪힌 나머지 '동어반복의 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문학 작품이 문학 시장에서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대한 경험적 자료와 문예지와 문예지 출판사가 문학 작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경험적 자료를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비평가의 배치를 통해 드러나는 문예지/문예지 출판사의 결정이 시장 매출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면 상업적 의도 성에 대한 객관적 추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립한 통계 모형은 직접 관찰하거나 수치화 시키지 못하는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기존의 문학 권력 논쟁이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난점을 해결하였다. 문학 권력 논쟁을 막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두 가지 관찰 불가능한 요인은 1) 작가/작품의 가치와 수준, 2) 이를 판단하는 문예지/출판사의 심미적·이념적 경향성이다. 외부의 비판자들은 작가/작품의 수준에 상관없이 출판사의 상업적 이익에 따라 작품이 선정된다고 비판하고, 출판사 내부의 방어자들은 문예지/출판사의 문학적 기준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는 경험적으로 관찰/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아래에 상술하겠지만 통계 모델은 이들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통제'(control)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야기하는 경험 분석의 불완전성을 해소한다. 우리는 이를 작가/작품/출판사의 고정효과(fixed effects) 통제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 작가, 출판사들 사이의 시간적으로 불변하는 차이들을 분석 과정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대상 표본을 3대 문예지 출판사가 직접 출판한 작품들에 한정함으로써 3대 문예지들이 외부의 다른 문예지/출판사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는 심미적·이념적 기준의 효과를 제거하였다.

4. 비평가 네트워크와 비평 영향력 분석

위와 같은 분석 전략에 기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우리는 작가와 작품, 문예지와 출판사의 양적, 질적 차이들을 제거하고, 출판물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반응, 인터넷의 반응, 판매주기의 패턴, 시기적 효과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가와 비평가의 사회적 유사성, 비평가가 비평가 세계에서 가지는 위치가 그가 특정한 작품에 대한 비평을 게재했을 때 일주일 후 그 소설 단행본 판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 비평가의 비평이 세계에서의 위치가 해당 작품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지지된다면 특정 작가/작품과 특정 비평가를 연결하는 문예지의 결정이 해당 작품의 상업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을 지지할 수 있다.

4-1 연구 모형

우리가 측정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k,w+1} = Y_{k,w} + Sk\omega\phi + \delta O^{ij} + Wj\beta + \mu k + \omega k + \tau k + \varepsilon_{k,w+1}$$

가. 모형의 전체적인 의미: 시계열과 고정 효과

<표 7>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모형의 이름은 “시계열 고정 효과 모형”이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여기서 시계열이란 ‘설명하는 것(독립변수)과 설명되는 것(종속변수)’이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인과성’을 추론하기 위한 장치이다.²⁷⁾ 원인과

27)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1) 통계적 상관 관계, 2) 시간적 선후 관계, 그리고 3) 다른 원인들의 배제이다. 통계적 상관 관계는 각

결과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은 횡단(cross-section) 분석에 비해 인과성 추론에 좀 더 다가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정 효과(fixed effects)는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요인들이 주는 다양한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행본의 고정 효과(α_j)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특정 단행본의 관찰되지 않는 효과(unobserved heterogeneity)를 통제(control)하였다. 예를 들어 작품별로 차이가 있을 재미나 깊이처럼 직접적으로 수치화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정보들의 효과를 통제한 것이다. 작품을 통제함으로써 작품들을 배타적으로 묶어주는 출판사의 효과도 자동적으로 통제된다.

나. 통제(control: *ceteris paribus*)의 의미

우리 모형처럼 여러 독립변수들을 통해 하나의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을 다변인(multivariate) 모형이라고 한다. 다변인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독립변수들을 사용하는 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 한 작품이 잘 팔리는 데에는 작품의 수준과 출판사의 홍보 역량 외에도 시기적 특성과 작가의 개인적 인기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는 원인이 출판사의 홍보 역량이었을 때, 독립변수를 홍보 역량 하나로만 구성한다면 통계를 통해 드러난 홍보 변수의 영향력은 사실상 포함시키지 않은 다른 영향들이 섞여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홍보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알고 싶다면 표본에서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작품의 수준, 시기, 작가 모두가 동일한 여러 작품들 가운데 홍보의 정도만 다른 것들을 골라 홍보와 판매량 사이의 관계를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다.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제시되며, 시간적 선후 관계는 데이터를 시계열 구조로 만든 것을 통해 충족시킨다. 마지막으로 다른 원인의 배제는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통제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 충족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료가 허락하는 한 많은 정보들을 모형 안에 넣으려 노력한다. 이때 분석을 통해 드러난 홍보의 영향력은 모형에 포함된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작품의 수준, 시기, 작가 개인의 특성 등이 '동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이다. 이때 한 모형에 여러 변수들을 넣는 것을 이 변수들의 효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holding constant; aetatis paribus*)이라고 하고, 이를 또 다른 말로 통제한다(*control*)라고 한다.

다. 핵심 변수와 통제 변수들

종속변수: 우리 모형의 종속변수($Y_{(W+1)}$)는 '다음 주($W+1$)의 판매량 증가분'이다. 각 단행본은 주별로 판매량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다음 주의 판매량 증가분이란 다음 주 판매량에서 이번 주(W) 판매량을 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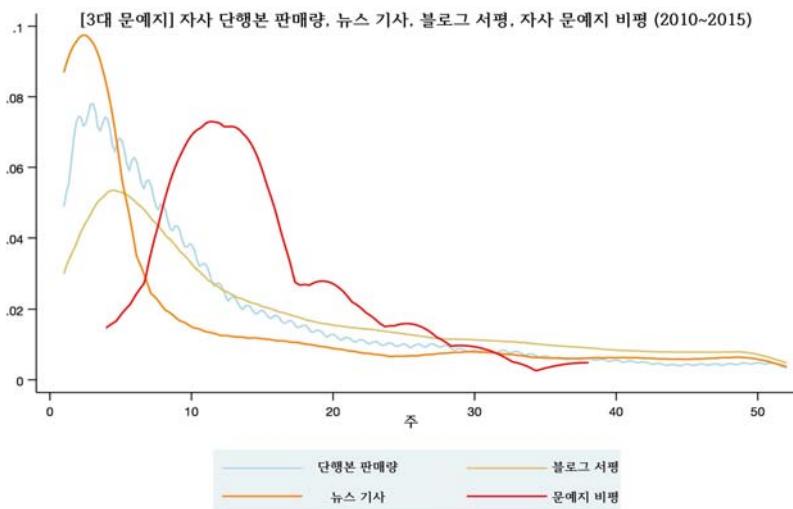
독립변수: 일주일 사이에 증감하는 판매량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예측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첫 번째는 1주일 전에 해당 작품을 평가한 비평가(j)와 해당 작품 작가(i) 사이의 사회적 유사성이다(O_{ij}). 이 변수는 출신 대학과 대학원, 대학(원)에서의 전공, 편집위원회 경력과 등단 경력, 재직 학교와 과, 성별 등의 범주에서 겹치는 정도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우리는 이를 평론이 실린 문예지별로 따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평론가(j)가 다른 평론가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측정한 것이다(W_j). 우리는 현재 자료에서 확보한 622명 비평가들 사이의 관계를 5가지 차원별로 따로 계량화했다. 이 5가지 관계는 1) 비평 대상 작가들을 매개로 한 연결망 (<그림 6>), 2) 비평을 게재한 문예지를 매개로한 연결망 (<그림 7>), 3) 편집위원회 경력을 매개로 한 연결망 (<그림 8>), 4) 등단 경력을 매개로 한 연결망 (<그림 9>), 5) 출신 대학(원)/전공을 매개로 한 연결망(<그림 10>)이다. 우리는 첫 세 가지 연결망들을 비평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로 보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출신 배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로 보았다.

이 5가지 연결망 속에서 2010-2015년 사이 3개 문예지에 비평을 실은 234명

평론가들의 두 가지 중심성 점수를 측정하였다. 이는 연결망 내에서 다른 비평가와의 관계수와 강도의 높낮음을 측정하는 관계 수 중심성(degree)과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이성 중심성(betweenness)이다. 이를 문예지별로 따로 측정하여 다음 주의 판매량 증감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삼았다.

통제변수: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 비평가의 비평가 집단 내에서의 위치가 작품의 판매 증감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해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우리는 우선 다음 주의 판매량 증감(ΔK_{W+})에 이번 주의 판매량 증감(ΔK_W)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단행본의 판매량은 평균적으로 초판 출판 후 5주 내에 정점을 찍으며 감소해가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전주의 판매 증감량을 통해 다음 주의 판매증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시간적 흐름의 패턴 자체를 통제하고서도 작가-비평가, 비평가의 구조적 위치가 판매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나는 또 다른 패턴은 이번 주의 판매량을 통해서도 다음 주의 판매량 증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8권 단행본의 평균적인 판매량 추이를 보았을 때, 특정 판매량이 향후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 '평균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작품에 대한 언론 기사 수, 일반인들이 블로그에 게재하는 소개 글, 그리고 각 문예지에 등재된 평론의 수도 향후 판매량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 효과들(*Skills*)을 통제하고서도 우리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하였다.

책의 가치 자체가 판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사실 문학 내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책의 가치는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물론, 관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효과를 이용하면 이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책의 가치는 시간적으로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행본의 경우 한 출판사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단행본 고정 효과(*Effects*)를 이용하여 단행본 저자와 이를 출간한 출판사의 효과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

비평가의 역량이나 개성 또한 책의 판매량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관찰/수치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정효과로 통제하였다 (*Effects*). 단행본과 비평가의 고정효과를 함께 통제함으로써 비평문의 성격도 함께 통제하게 된다. 시론, 논문, 서평, 작가론은 성격상 판매량 증감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경험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기대이지만, 우리는 이들 사이의 차이가 주는 효과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 핵심 독립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의 효과도 통제하였다 (*Effects*).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시간 효과 중에서 우선 주(週) 수를 통제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출간 이후 52주 동안 책 판매량은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따라서 특정 주 수가 주는

무형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또 다른 시간은 단행본 별로 겪게 되는 달력 상의 날짜들이 주는 효과이다. 계절, 날씨, 사회적 사건 등 해당 날짜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태는 책의 판매량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고정 효과를 통해 통제하였다.

4-2. 분석 결과

<표 7>는 우리 모형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7개의 모형들은 통제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대입한 후, 여기에 독립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더하는 위계적 구조로 구성하였다. 이는 변수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변수들이 변화를 겪는지, 아니면 변화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이기 위함이다.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는 이 효과를 공고하다(robust)고 하며 더 높이 신뢰한다.

가. 통제변수의 효과

현재 주의 판매량 증감이 다음 주의 판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수이다. 이는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엔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며 전주의 증감과 다음 주의 증감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방향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주의 판매량이 높을수록 다음 주의 판매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유의미한 음의 계수). 가장 뚜렷한 경우는 판매량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이다. 이를 지나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다.

블로그 수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일관성 있게 음의 계수를 가진다. 이는 <그림 2>에서도 나타나듯이 블로그 수는 판매량의 추이를 따라가는 형태를 가진다. 즉 시장에서의 반응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형국을 보인다. 블로그 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변수들과의 공분산성(collinear) 때문일 수 있다.

언론 기사 수는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가진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언론 기사 수의 추이는 판매량을 선행한다. 따라서 언론 기사 수는 판매량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 중의 하나이다.

문예지별 평론 수 중에서 가장 뚜렷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창작과비평』의 영향이다. 이는 유의미한 음의 계수로 모든 모델에서 나타난다. 『문학과사회』와 『문학동네』는 일부분에서만 유의미하지만 7개 모델 모두에서 음의 계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계간지 발간의 스케줄 때문이 평균적으로 평론이 판매량 추이에 후행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단행본의 판매량의 시간적 변화는 언론 기사를 통한 홍보 → 판매량 증가 → 블로거들의 인기 작품 비평 → 비평의 등장이라는 패턴을 가지며 이를 우리 모형이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2>와 이에 대한 각 문예지 출판사별 판매량 추이(<그림 3, 4, 5>)는 “멀티미디어가 지배적인 문화 양식이 되어 가는데, 문학은 여전히 예전의 속도를 지킬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계간지가 유효한가”라는 정과리의 질문²⁸⁾에 일정 정도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 민주주의를 가장한 무정부주의적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강화”된다²⁹⁾ 비판적 문제의식은 일견 옳다. 왜냐하면 신문기사를 통한 홍보의 숫자를 일정한 시간치를 두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정과리의 비판적 전망에 두 가지 경험적 보정을 제공한다.

첫째, 사이버 공간이 시장주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시장을 따라간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일반인 평론가들의 반응은 출판사 홍보 전략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온라인에 시장 선도자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

둘째, 계간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모든 계간지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28) 정과리 이광호·오형엽 박철화, 「좌담: 21세기 문학과 문예지의 좌표」, 『작가세계』, 1999. 여름, 125-126면.

29) 정과리 외, 앞의 글, 133면.

『창작과비평』만이 평론을 통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작과비평』의 이 같은 지위와 영향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문학 권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등해진 지금, 『창작과비평』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좀 더 엄밀히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독립변수의 효과

단행본 판매량의 시계열적 패턴과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의 요인들이 판매량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작가·비평가 사이의 인구학적 유사성: 앞서도 상술했듯이 우리는 작가와 비평가가 출신학교/전공, 편집위원 경력, 등단지 이력, 재직 학교/학과, 성별 등에서 동일한 정도를 정수(integer)로 입력하였다. 그 결과 『창작과비평』 평론가들이 자신과 인구학적 배경이 비슷한 작가들의 작품을 평론할 경우, 그 다음 주 판매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망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표 7> : 모형 3), 『창작과비평』 비평가와 단행본 작가 사이의 유사성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비평이 발표된 다음 주 판매량이 전 주에 비해 10권 정도 증가하였다. 『문학과사회』, 『문학동네』 비평의 경우도 양의 계수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왜 유독 『창작과비평』에서만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토론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작가·비평가 사이의 인구학적 유사성이 높은 경우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표 6>). 비평가 류수연은 『창작과비평』에 권여선의 작품 『비자나무숲』에 관한 평론을 썼다. 권여선과 류수연은 같은 대학원(인하대)과 같은 학과(국문과)를 졸업한 여자(성별)다. 이때 인구학적 유사성 정도를 점수로 매기면 3점이 된다. 이러한 사례는 『문학과사회』와 『문학동네』에서도 나타난다. 비평가 소영현은 『문학과사회』에 한강의 작품 『희랍어 시간』에 관한 서평을 썼다. 이때 소영현과 한강은 같은 대학과 학과(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여성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유사성 점수는 3점이다. 마지막으로 비평가 신수정은 『문학동네』에서 편혜영의 『재와 뺨강』의 평론을 썼다. 이 둘은 대학원 전공이 같고 같은 학교(명지대 문창과)에 재직하며 여성이다. 이 또한 유사성 점수는 3점이다.

위에서는 여성 작가와 여성 비평가의 사례를 들었지만, 같은 남성 작가-비평가 사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비평가 서영채와 작가 김경욱, 이해경은 대표적인 사례다. 서영채와 김경욱은 같은 대학(서울대)과 학과(국문과 대학원)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문예창작과³⁰⁾)에서 재직하고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경우 유사도 점수는 4점이다. 또한 서영채와 작가 이해경도 마찬가지다. 이 둘은 같은 대학과 학과(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유사도 점수는 3점이다.

<표 6> : 작가-비평가 사이의 인구학적 유사성 사례

이름	대학	학과	대학원	학과	재직학교	재직학과	편집위원	성별	등단지
권여선	서울대	국문과	인하대	국문과				여	상상문학상
류수연	인하대	국문과	인하대	국문과				여	창작과비평
한강	연세대	국문과			서울예대	문창과		여	문화과사회
소영원	연세대	국문과	연세대	국문과	연세대	국학 연구원		여	작가세계
편혜영	서울예대	문창과	한양대	국문과	명지대	문창과		여	서울신문
신수정	서울대	국문과	서울대	국문과	명지대	문창과	문화동네	여	문화동네
서영채	서울대	국문과	서울대	국문과	한신대/서울대	문창/아시아	문화동네	남	세계의문학
김경욱	서울대	영문과	서울대	국문과	한예종	서사 창작		남	작가세계
이혜경	서울대	국문과	동국대	연극영화				남	문화동네

평론 활동 연결망 내에서 비평가의 위치: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연결망을 만들었다. 우리의 문예지 자료는 1994-2015년 동안 3개 문예지에 글을 실은 모든 평론가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은 622명에 달한다. 우리가 조사한 622명의 평론활동은 크게 3가지 차원을 가졌다. 1) 어느 작가를 평론하였는가, 2) 어느 문예지에 평론을 발표하였는가, 3) 56개 문예지 중 어디에서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는가.

이 세가지 정보를 통해 동일한 작가를 평론한 두 비평가 사이를 연결하는 '작가-

30) 문예창작과와 서사창작과를 하나로 묶어서 분류했다.

‘매개 연결망’(<그림 6>), 동일한 문예지에 평론을 발표한 두 비평가 사이를 연결한 ‘문예지 매개 연결망’(<그림 7>), 그리고 동일한 문예지에서 편집위원을 역임한 두 평론가를 연결한 ‘편집위원회 매개 연결망’(<그림 8>)을 만들었다.

우리는 3개 문예지 비평가별로 각 연결망에서 두 가지 위치 정보를 측정하였다. 하나는 ‘관계 수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 이는 동일한 매개 (작가, 문예지, 편집위원회)로 연결된 다른 비평가의 수가 많거나 수가 적더라도 연결 강도가 강한 비평가들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다른 연결망 내의 위치 속성은 ‘사이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이는 해당 비평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연결되지 않는 비평가들이 많을 때 높은 점수를 부여 받는다.

평론 활동 연결망을 통해서 봤을 때, 『창작과비평』에 실린 평론가들이 구조적 위치(관계 수 중심성, 사이 중심성)가 판매량 증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 모형 4-7) 흥미로운 것은 작가 매개 연결망에서는 집단의 중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비평가 (+ 관계 수 중심성; - 사이 중심성)의 평론이 향후 판매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문예지 매개 연결망에서는 비교적 여러 문예지에서 골고루 활동을 하는 비평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관계 수 중심성; + 사이 중심성).

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창작과비평』의 평론가 배치 방식과 이를 통한 판매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신경숙과 김애란를 비평한 임규찬과 한기욱은 작가 매개 연결망에서 관계수 중심성이 높고, 사이 중심성이 낮은 사례에 속한다 (+ 관계 수 중심성; - 사이 중심성). 이 두 평론가들은 공교롭게 둘 다 『창작과비평』의 편집위원 출신이다. 즉, 이들은 대외적으로 작품의 출판사에 대한 고려 없이 평단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작가의 작품을 주로 비평해 온 것이다. 이 경우 작가 매개 연결망에서 관계 수 중심성이 높고 사이 중심성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 이들의 비평 대상은 이미 시장의 뜨거운 반응 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들 유명 비평가의 후광 효과로

더 잘 펼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평의 영향력이 시장에서의 인기와 결합된 경우 이지만 작품 판매량에 비평 자체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반면 정도상과 서유미를 비평한 정은경과 전철희는 문예지 매개 연결망에서 관계 수 중심성이 낮고 사이 중심성이 높은 사례이다(- 관계 수 중심성: + 사이 중심성). 두 평론가는 『창작과비평』에 비평을 집중적으로 싣지 않고 다른 문예지에서도 글을 게재하였다. 이는 문예지 매개 연결망에서 관계 수 중심성은 낮은 대신 사이 중심성이 높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비평의 대상이 된 정도상, 서유미는 신경숙, 김애란 보다는 문단의 관심을 적게 받은 작가들인데, 앞의 경우와 다르게 비평이 작품 판매량에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평이 시장에서 이미 인기 있는 작품이 아닌 이 두 작가의 작품 판매량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두 작품이 '창비'에서 나온 자사 단행본이라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소위 '영향력 없는 외부'의 평론가가 해당 출판사의 작품 평론을 의뢰받았을 때 가지게 될 부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출신 배경 연결망 내에서 비평가의 위치: 출신 배경 연결망은 등단지 이력과 출신 학교/전공 두 가지 차원에서 각각 구축하였다. 여기서도 『창작과비평』 비평가들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이들은 관계 수 중심성과 사이 중심성 높을 때 판매량 증감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해당하는 비평가들은 등단 이력 연결망과 출신 학교 연결망에서 두 개 이상의 규모가 큰 집단에 속해 있다. 비평가 조형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향신문(2008)과 '문화동네'(2009)에 평론으로 등단하였다. 이렇듯 복수의 등단지로 등단한 경우 하나의 등단지를 통해서 문인이 된 사람들보다 관계 수 중심성과 사이 중심성이 높았다.

5. 결론 및 토론

1990년대 이전 비판적 문화이론은 몇 가지 큰 흐름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부구조의 반영으로서의 문화, 이 과정에 개입하는 국가, 시장, 조직의 상징 조작과 집합 행동에 대한 분석들이 큰 흐름을 형성했다. 1970-80년대 비판적 문화 이론에 대한 반성은 문화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충돌과 협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했다.³¹⁾ 서구 문화이론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이 우리 순문학계에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 문학계의 변화는 현실사회 주의의 몰락이라는 경험으로부터 촉발됐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 문학의 "집단주의는 (……) 실제적, 정신적 근거를 잃어버렸고" 이 정신적 공백에 어느 날 갑자기 문학산업이 들어앉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문학산업은 하나의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실체가 아니라 문학 본연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와는 상관없는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되었다.³²⁾ 문학 권력 논쟁이 감정적 외연을 띠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는 문화 생산, 문학 시장을 문학 장 전체가 조직화되는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들 가운데 하나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목적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대 출판사에서 최초 출판된 228권의 단행본의 52주간 판매량 증감을 예측한 모형에서 작가·비평자 사이의 사회적 유사성, 비평가의 비평가가 세계에서의 위치가 판매량 증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러한 경향성이 『창작과비평』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문학 권력' 논쟁에서 논의된 것과 사뭇 다르다. '문학 권력' 논쟁에서 이른바 '상업주의'로 지목받은 출판

31) Gil Eyal and Larissa Buchholz, "From the Sociology of Intellectuals to the Sociology of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2010p.117-37.; Wendy Griswold, "Recent Moves in the Sociology of Litera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1993, p.455-67.

32) 정과리 외, 앞의 글, 137-138면.

사는 '문학동네'였다. '문학동네'는 1994년 등장부터 지금까지 문예지를 비롯하여 공모전, 문학상, 단행본 출판 등 가장 공격적인 홍보를 해온 곳이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표 1 -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사 출간 단행본에 가장 적극적인 비평을 싣는 곳이 『문학동네』이다. 하지만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검증한 세 가지 사회적 관계 모형의 결과는 『창작과비평』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사회적 관계란 1) 평론가와 작가 사이의 관계, 2) 작가를 매개로 한 평론가 사이의 관계, 그리고 3) 문예지를 매개로 한 평론가 사이의 관계이다.

우리 모형은 외형적인 상업적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 같은 문학계 내부의 인간적 관계가 상업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드러난 『창작과비평』의 독보적인 유의성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실제 우리 순문학계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킨다. 『창작과비평』만이 이 문단 내부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문단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통계적 검증은 여러 사례의 평균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연이 깊은 특정 작가-비평가의 사례가 경향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경험 분석은 전기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통계의 마술'이라 폄하돼도 할 말이 없게 된다.³³⁾

단행본 작가와 비평가의 사회적 인연이 강하면 작품의 판매량이 더욱 증가하는 현상은 작품에 비평가를 배치하는 문예지의 결정이 상업적 성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가정들이 관철되어야 한다. 1) 작가와 비평가 사이가 사회적으로 가까울수록 판매량 증가에 유리한 비평을 한다. 2) 판매량 증가에 유리한 비평을 하면 실제 판매량이 오른다. 실제 '주례사 비평을 통한 작품 띄우기'는 이 두 가지 가정들이 참임을 전제한

33) 장정일, 「'지하철 시(詩)'와 문학 권력」, 『한국일보』, 2015.11.13.

비판이다. 주례사 비평의 메커니즘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모형은 문예지의 상업적 전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창비'의 '표절의 의도성 불가지론'에서 나타나듯이 그 의도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확증할 수 없다. 이는 오로지 작가, 문예지 편집자 당사자들이 대답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비평가 인연이 갖는 권력 효과를 직시하는 목소리들을 부인하기 어렵다. 염종선이 '문학 권력론'을 평가하면서 인용한 황현선의 평가를 다시 인용해보자. “‘권력’이니 ‘담합’이니 보다는 한국 사회 특유의 ‘안면’과 ‘관계’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³⁴⁾ 염종선은 이것이 야기하는 파상적 평론을 “권력적 동기가 전혀 없으리라 볼 수는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엇이 본질인지 더 캐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면과 관계가 맺어주는 관계망의 비균질적 분포, 그리고 이와 함께 펼쳐지는 ‘취향의 동종애와 미학적 거리두기(taste homophily and aesthetic distancing)’가 바로 권력 현상의 구조적 조건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³⁵⁾

비평가들의 비평가 세계에서의 위치가 판매량 증감에 갖는 영향력도 마찬가지이다. 문예지 편집위원회가 비평가를 선정할 때, 이들의 구조적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여 배치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이 갖는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이들의 구조적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구조적 위치와 판매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주체 없는 구조적 과정’이지만 평론가의 구조적 조건과 판매량에 동시에 연관되어 있는(confounding) 의식적 선택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편집위원회와 평론가의 “평론에 대한 평론”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플로베르에 대한 연구에서 부르디외는 19세기 프랑스 문학가들은 돈만 없을 뿐 나머지는 다 부르주아라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르주아

34) 염종선, 앞의 글, 80면.

35) Mark A. Pachucki and Ronald L. Breiger, "Cultural Holes: Beyond Relationality in Social Networks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2010, p.205-224.

가문의 내놓은 자식들이었다(*the idiot of the bourgeois family*). 부르주아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예술을 했지만 뜻밖 이들의 작품을 사기는 자들은 부르주아였다. 한 때나 마 부르주아와 경쟁하고, 심지어 대항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건 당시의 문화 생산 양식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르주아에게 작품을 팔지 않음으로써 문학 시장 자체를 폐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공급과 수요의 시간차가 주는 착시에 불과했다. “반신반인처럼 사고하지만, 사는 모습은 부르주아”일 수밖에 없었다.³⁶⁾

21세기 한국 문학계의 생산 양식은 19세기 프랑스의 문화 생산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따라서 판매량과 작가평론가의 사회적 위치 사이의 동시적인 통계적 상관성³⁷⁾은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인정하는 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정과 우리 문학 장이 ‘새로운 생각의 출현’을 발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시장에서의 집중화와 새로운 것을 질식시키는 권력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 장 안에서 개별 창작자, 평론가의 유한성의 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플로베르의 사회학적 제약을 뛰어려고 한 부르디 외의 연구와 우리 연구가 맞닿아 있다.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한 문학의 상업적 권력 과정에 대해, 특히 그 자본주의적 자연스러움에 대해, 메타비평을 통한 답변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문학장을 통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의 모자람(underwhelming)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인다.³⁸⁾ 기계적인 양적수치해석은 질적인 텍스트 분석만큼 풍부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문학계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방식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연구를 국문학계에 보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36) Pierre Bourdieu,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161-75.

37) “Significantly, all statistical inquiries show that the social properties of agents, thus their dispositions, correspond to the social properties of the position they occupy” Bourdieu, Ibid, p.165.

38) Joshua Rothman, “An Attempt to Discover the Laws of Literature.”, *The New Yorker*, 2014.3.20

첫째, 우리 연구는 문학권력 문제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이어가기 위해 강준민과 권성우가 제기했던 타 분과와의 협업 요청에 대한 사회과학으로부터의 대답이다.

둘째, 우리 문학계는 그동안 사회구조나 시대정신 같은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엄밀한 현실적인 계산”(백낙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³⁹⁾

셋째, 연결망 분석과 시계열 통계를 결합한 우리의 연구 방법론은 사실상 후기 실증주의의 방법론적 방향성을 따르고 있다. 이는 대상을 고정시키는 문헌주의적 (philologism) 오류를 지양하고 나아가 우리가 발견한 구조적 권리 효과에 대한 단일한 해석 또한 경계한다.⁴⁰⁾ 우리가 문학권력 일반과 우리 발견에 대해 순문학계가 메타비평을 통해 응답해주기를 요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우리 연구는 2015년 신경숙 개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대에 출간된 전체 문학작품과 이에 대한 평론의 ‘평균’에 주목한다. 문학 빅데이터를 만들어 이를 통계 분석하여 그 평균을 밝혀내는 것은 오늘날 디지털 인문학 또는 인문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이 취하는 일반적 접근 방식이다.⁴¹⁾ 기존의 문학연구 방식과 디지털 인문학 사이에 거대한 인식론적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두 분야가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개별 작품과 평론에 대한 깊이 있고 섬세한 평가를 하지 않지만, 유력 작가와 작품의 그늘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작품들(the great unread)⁴²⁾이 ‘평균적으로’ 만들어내는 집합적 권리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앞으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문학연구에 있어서 쓸 만한 보조자의 지위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39) 고은 외,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1978.가을, 2-52면.

40)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p.17

41) Franco Moretti, "Graphs, Maps, Trees." *New Left Review* 24, 2003, p.67-93.

42) Franco Moretti, "The Slaughterhouse of Literature." *Modern Language Quarterly* 61, 2000, p.207-227.

6. 표와 그림 : <표 7>, <그림 1 - 10>

<표 7> : 일주일 후의 판매량 증가분을 예측하는 시계열 고정효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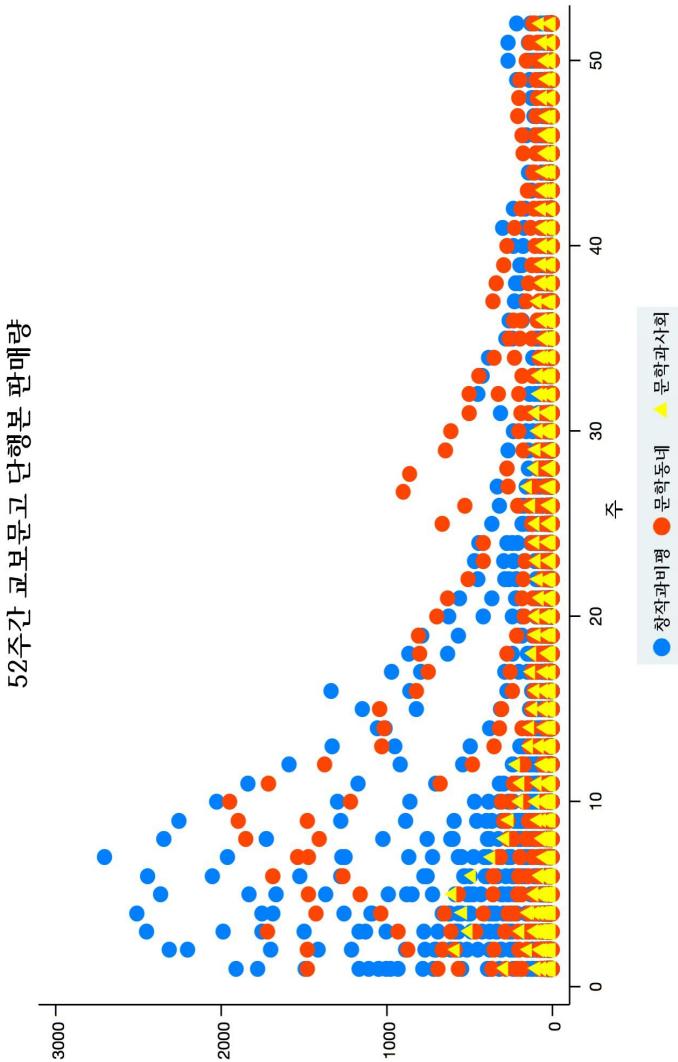
종속 변수: 판매량 증가분(다음 주 예)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관계수	관계수	관계수	관계수	관계수	관계수	관계수
판매량 증가분(현재 주)	0.044*** (0.007)	0.042*** (0.007)	0.042*** (0.007)	0.042*** (0.007)	0.037*** (0.007)	0.041*** (0.007)	0.040*** (0.007)
판매량(현재 주)	-0.077*** (0.002)	-0.076*** (0.002)	-0.076*** (0.002)	-0.076*** (0.002)	-0.075*** (0.002)	-0.076*** (0.002)	-0.075*** (0.002)
블로그 수(현재 주)	-0.117 (0.095)	-0.113 (0.095)	-0.122 (0.095)	-0.120 (0.095)	-0.122 (0.095)	-0.117 (0.095)	-0.121 (0.095)
인론 기사 수(현재 주)	0.753** (0.237)	0.753** (0.237)	0.746** (0.237)	0.730** (0.237)	0.765** (0.236)	0.759** (0.237)	0.753** (0.236)
『창작과비평』 평론수(현재 주)	-19.509*** (3.030)	-29.243*** (4.803)	-31.434*** (6.926)	-114.033*** (12.229)	-51.432*** (7.923)	-62.823*** (8.308)	
『문화과사회』 평론수(현재 주)		-2.818 (2.636)	-7.188 (4.294)	-13.817* (6.075)	-12.932 (10.275)	-17.960* (7.307)	-17.404* (8.044)
『문화동네』 평론수(현재 주)		2.918 (2.115)	-0.356 (3.423)	-3.981 (4.449)	-34.196*** (8.032)	-9.805 (5.489)	-9.851 (5.604)
작가-비평가 인구학적 유사성 (『창작과비평』)			10.194** (3.924)	15.527*** (4.258)	10.628* (4.338)	8.306* (3.989)	9.603* (4.002)
작가-비평가 인구학적 유사성 (『문화과사회』)			4.322 (3.399)	3.498 (3.536)	3.616 (6.600)	3.628 (3.458)	2.905 (3.588)

	작가-비평가 인구학적 유사성 ("문화동네")		2,952 (2,435)	1,784 (2,452)	1,038 (2,454)	2,976 (2,453)	2,843 (2,452)
평론 활동	비평가의 작가-비개 연결망 ("정자과대학")		1,726*** (0.351)	1,737*** (0.355)	-0,011*** (0.003)	-0,011*** (0.003)	-0,011*** (0.003)
	비평가의 작가-비개 연결망 ("문화과대학")		-0,253 (0.263)	-0,239 (0.273)	0,003 (0.002)	0,003 (0.002)	0,003 (0.002)
	비평가의 작가-비개 연결망 ("문화동네")		-0,395* (0.187)	-0,357 (0.19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비평가의 문예지-매개 연결망 ("정자과대학")		-0,579*** (0.157)	-1,254*** (0.175)	0,058*** (0.010)	0,046*** (0.011)	0,046*** (0.011)
	비평가의 문예지-매개 연결망 ("문화동네")		0,217 (0.197)	0,245 (0.223)	0,006 (0.008)	0,008 (0.008)	0,008 (0.008)
	비평가의 문예지-매개 연결망 ("문화동네")		0,174 (0.127)	-0,109 (0.143)	0,017*** (0.007)	0,017*** (0.007)	0,017*** (0.007)
	비평가의 한집위원회-매개 연결망 ("정자과대학")		-2,163*** (0.580)	-0,521 (0.612)	0,196 (0.127)	0,127 (0.127)	0,127 (0.127)
	비평가의 한집위원회-매개 연결망 ("문화동네")		0,953 (0.728)	0,855 (0.736)	- (0.736)	- (0.736)	- (0.736)
	비평가의 한집위원회-매개 연결망 ("문화동네")		1,784*** (0.531)	1,963*** (0.532)	-0,015 (0.124)	-0,020 (0.124)	-0,020 (0.124)
	비평가의 등단지-매개 연결망 ("정자과대학")			0,832* (0.353)		0,005* (0.002)	
출신 배경	비평가의 등단지-매개 연결망 ("문화동네")				-0,030 (0.205)	-0,001 (0.001)	
	비평가의 등단지-매개 연결망 ("문화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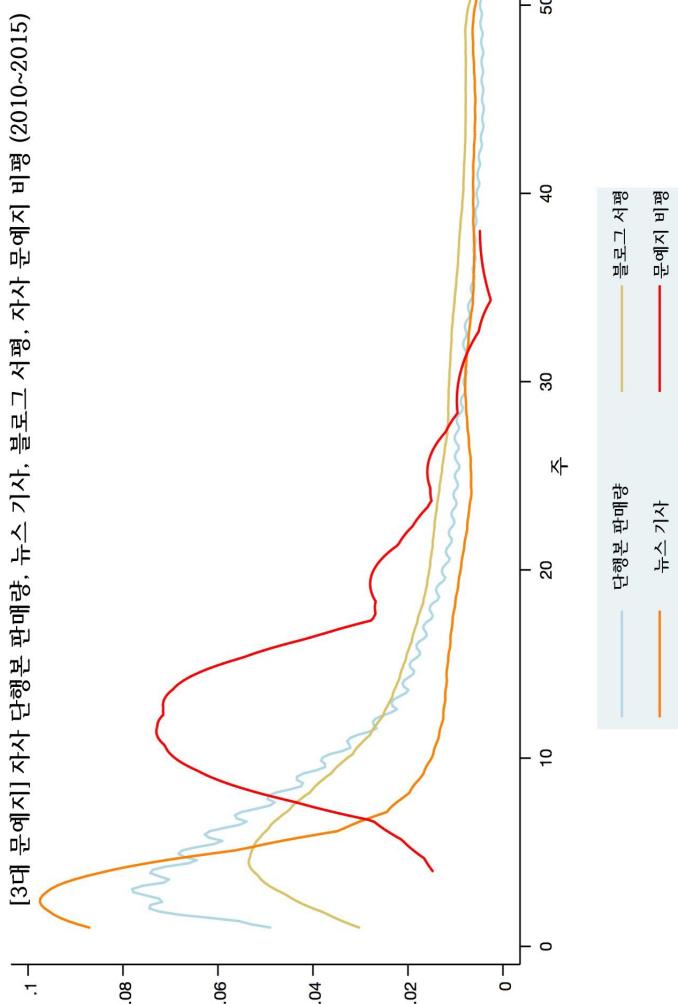
비평기의 등단자 폐계 연결망 ("문학동네")				0.563*	-0.001
비평기의 출신대학마다 학원전공 폐계 연결망 ("정전과 대체 평")			(0.232)	(0.001)	0.490***
비평기의 출신대학마다 학원전공 폐계 연결망 ("문화재사회")			(0.067)	(0.010)	
비평기의 출신대학마다 학원전공 폐계 연결망 ("문화동네")			-0.013	0.002	
비평기의 출신대학마다 학원전공 폐계 연결망 ("문화동네")			(0.053)	(0.011)	
비평기의 출신대학마다 학원전공 폐계 연결망 ("문화동네")			0.149***	0.002	
상수	11.482 (16.542)	11.819 (16.510)	11.764 (16.505)	11.901 (16.478)	11.725 (16.415)
단행본 고정 효과	0	0	0	0	0
작가 고정 효과	0	0	0	0	0
날짜 고정 효과	0	0	0	0	0
출판 후 주제 수 고정 효과	0	0	0	0	0
시례 수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단행본 수	228	228	228	228	228
R2	0.214	0.217	0.218	0.221	0.228
표준오차는 평균±1*** p<0.001, ** p<0.01, * p<0.05					

는 경우를 보면,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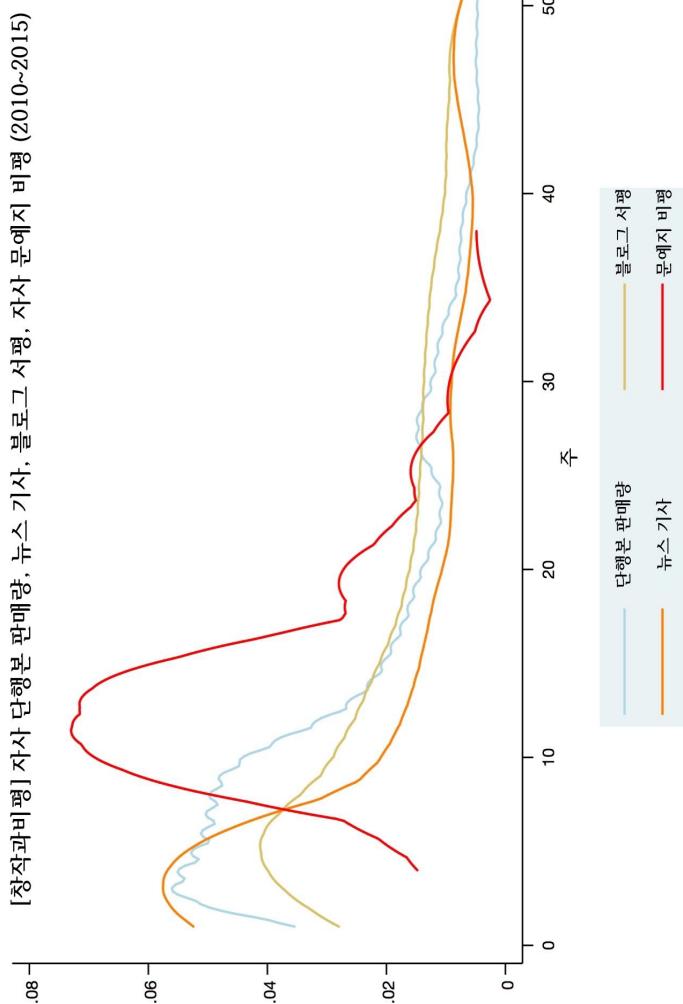
<그림 1> – 52주 단위 교보문고 단행본 판매량 추이



<그림 2> - [3대 문예지] 저자 닉행본 판매량, 뉴스기사, 블로그 서평, 저자 문예지 비평 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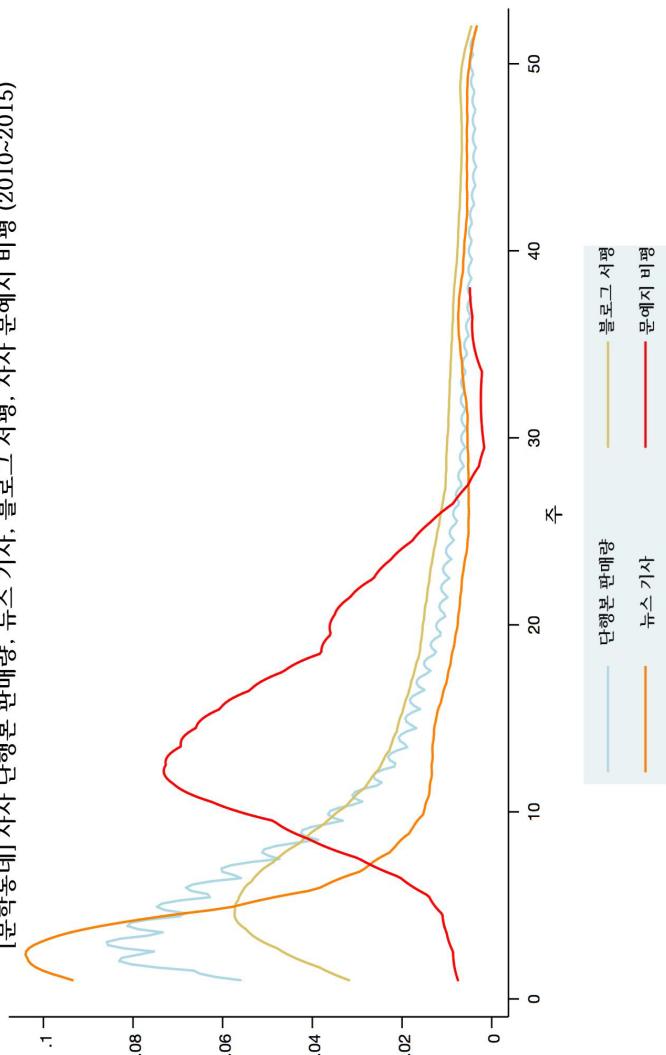


<그림 3> [창작과비평] 저자-단행본 판매량, 뉴스기사, 블로그 서평, 저자 문예지 비평 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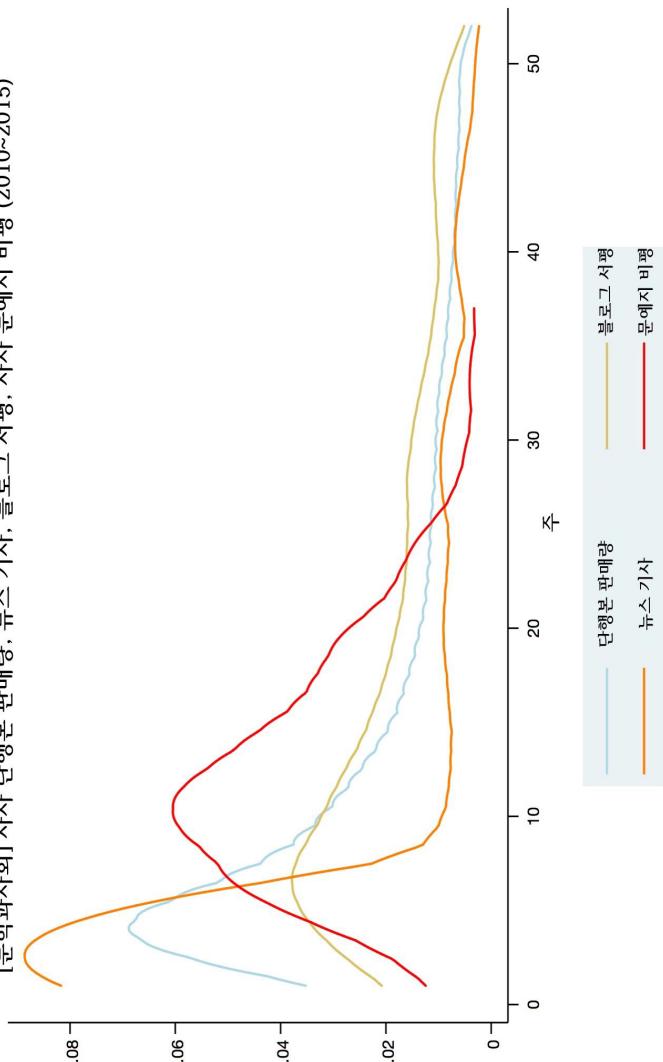
<그림 4> [문화동네] 자사 단행본 판매량, 뉴스기사, 블로그 서평, 자사 문예지 비평 주0

[문화동네] 자사 단행본 판매량, 뉴스 기사, 블로그 서평, 자사 문예지 비평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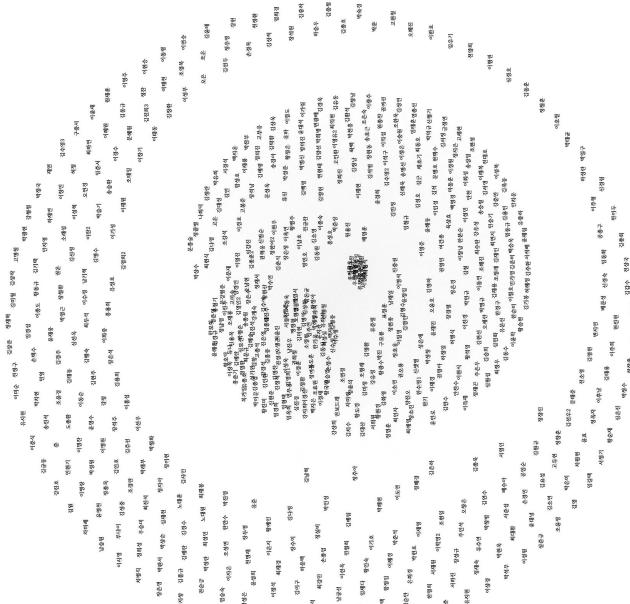


<그림 5> [문학과 사회] 저자 단행본 판매량, 뉴스기사, 블로그 서평, 저자 문예지 비평 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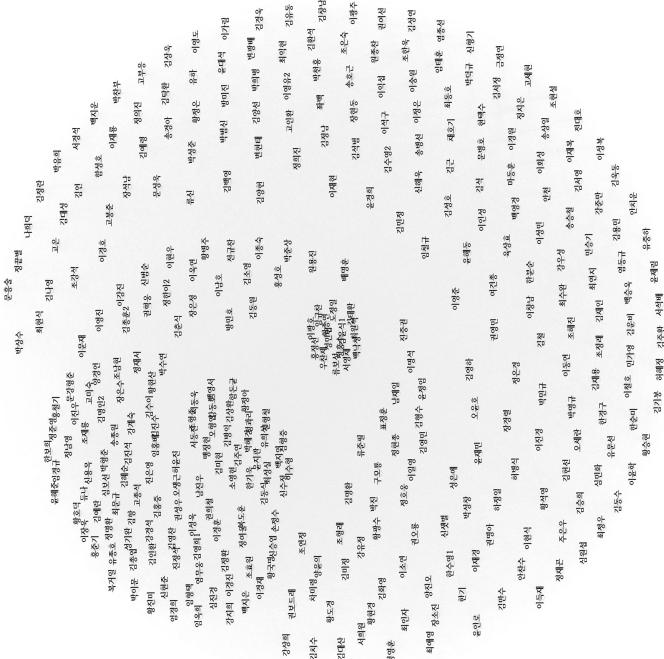
[문학과사회] 저자 단행본 판매량, 뉴스 기사, 블로그 서평, 저자 문예지 비평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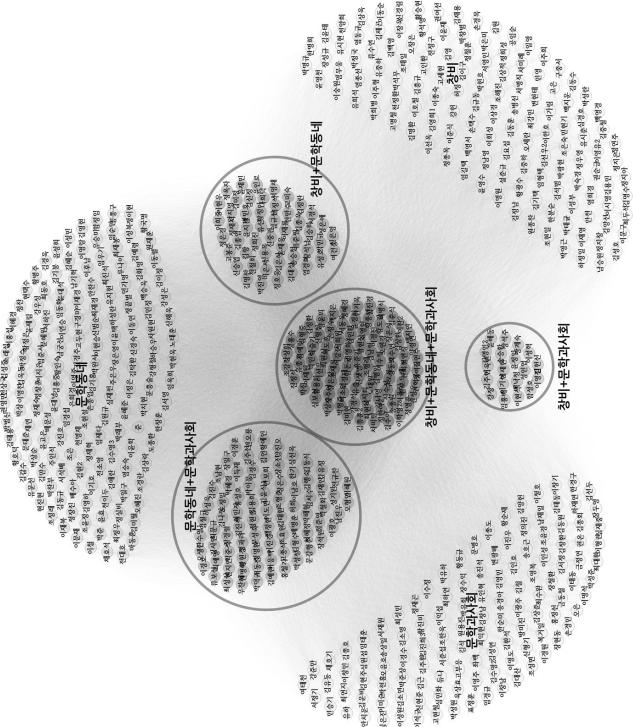


<그림 ⇔ – 차가 마끼 언걸망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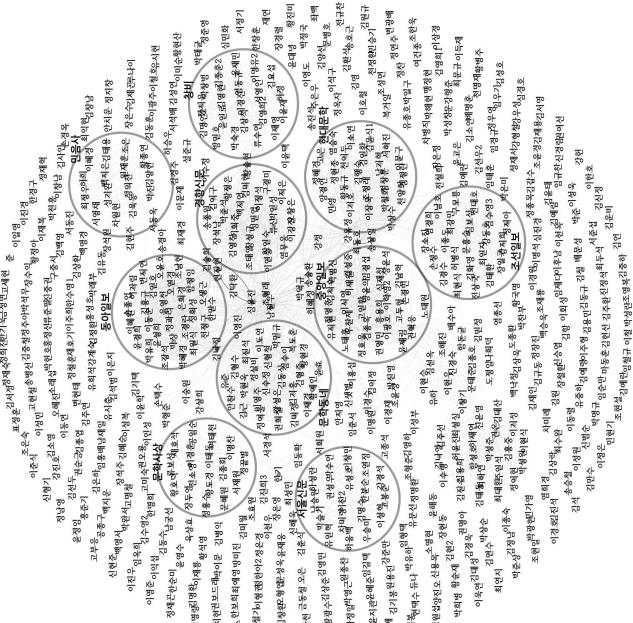
(국) 문학동네 | 2015-07-19 - <1-9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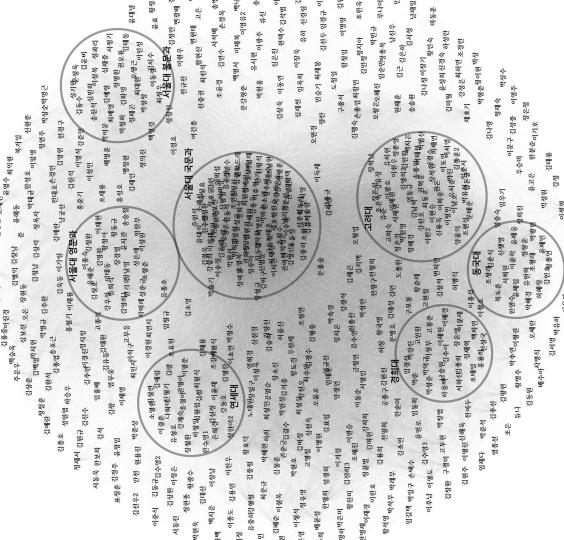


<그림 7> - 문예지 매개 연결망

<그림 8> - 문예지 편집위원회 매개 연결망



<그림 9> - 등단경력 매개 연결망



<그림 10> - 학력(출신 대학(원)/전공) 매개 연결망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전봉관·김병준·이원재,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형: 1994~2014」,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2. 단행본

- 강준만·권성우, 『문학 권력』, 개마고원, 2001.
권성우, 『논쟁과 상처』, 숙명여대 출판국, 2006.
윤지관, 『놋쇠하늘 아래서: 지구 시대의 비평』, 창비, 2001.
이수영,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Bourdieu, Pierre,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Bourdieu, Pierre.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3. 논문

- 고은·유종호·구중서·이부영·백낙청,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1978. 가을.
김도언·손아람·이기호·장강명·신형철, 「한국문단의 구조를 다시 생각한다 - 작가들의 시선으로」, 『문학동네』, 2015. 가을.
남진우, 「문학 권력 논쟁에 대하여」, 『문학동네』, 2001. 겨울.
서영인, 「한국문학의 독점 구조와 대중적 소통 감각의 상실」, 『실천문학』, 2015. 가을.
염종선, 「창비를 둘러싼 표절과 문학 권력론 성찰: 한 내부인의 시각」, 『창작과비평』, 2015. 겨울.
이광호, 「문학 장치의 경계에서 - '문학 권력론'의 재인식」, 『문화과사회』, 2015. 겨울.
이재연, 「일반논문 : 작가, 매체, 네트워크 -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間SAI』 17, 2014.
장정일, 「'지하철 시(詩)'와 문학 권력」, 『한국일보』, 2015. 11. 13.

정과리·이광호·오형엽·박철화, 「죄담: 21세기 문학과 문예지의 좌표」, 『작가세계』, 1999. 여름.
한준·한신갑·장유정·권도희, 「한국 근대적 음악계의 형성과 변화」, 『문화와 사회』 10, 2011.

Eyal, Gil, and Larissa Buchholz, "From the Sociology of Intellectuals to the Sociology of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2010.

Griswold, Wendy, "Recent Moves in the Sociology of Litera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1993.

Moretti, Franco, "The Slaughterhouse of Literature", *Modern Language Quarterly* 61, 2000.

Moretti, Franco, "Graphs, Maps, Trees", *New Left Review* 24, 2003.

Pachucki, Mark A., and Ronald L. Breiger, "Cultural Holes: Beyond Relationality in Social Networks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2010.

Rothman, Joshua, "An Attempt to Discover the Laws of Literature", *The New Yorker*, 2014.3.20.

■ 영문초록

The Influence of Writer-Critic relationships and Critic's Structural Positions on the Sales Growth in Book Market: 2010-2015

Lee, Won Jae • Kim, Byung Jun • Jun, Bong Gwan

We statist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critics on the book's sales using longitudinal data of book sales, bibliographies of the three major publishers, and the socio-demography of writers and critics. The social homogeneity between writer and critic, and the critic's structural position turned out to increase the sales growth of the book. The results support the literary power hypothesis that social relations are mobilized to serve commercial purposes. A theoretical mechanism of Korean literary power is suggested.

Key words: Literature power, Critic power, Social power, Commercial power, Social network analysis, Longitudinal statistics.

접수일자: 2016.2.29.

심사기간: 2016.3.12-3.30.

게재결정: 2016.4.2.